

「華城城役儀軌」의 한글자료에 관한 연구*

- 한글본 「덩니의궤」에 수록된 ‘화성성역’의 분석과 비교 -

A Study on the Hangeul Materials of *Hwaseong-seongyeok-ugwe*:
An Analysis and Comparison of “Hwasheongsheongyeok” of
Dyeongniquigwe of the Korean Version

옥 영 정(Ok, Young-Jung)**

◁ 목 차 ▷

1. 서 언	3.1 한문본에 나타나는 내용
2. 한글자료 ‘화성성역’의 내용과 특징	3.2 한문본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
2.1 城役以前の 계획시기	4. 결 언
2.2 城役時期	<참고문헌>
2.3 城役以後의 시기	부록: 「화성성역의궤」의 체제에 따른 ‘화성성역’ 내용의 재구성
3. 한문본「화성성역의궤」와의 비교	

< 초 록 >

이 연구는 한글본 「덩니의궤」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을 토대로 그 내용의 일부인 ‘화성성역’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과 함께 한문본 「화성성역의궤」와의 비교 검토를 수행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한글의궤의 일부인 ‘화성성역’은 한문 원문에 대한 한글의 번역양상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한자로 표기된 물품명, 지명, 각종 용어 등이 한글로 어떻게 쓰였는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권의 한글 의궤에 수록된 原文書의 종류와 양을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떤 원자료를 통하여 한글의궤가 작성되었는가를 일부나마 확인할 수도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서지학, 국어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수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한 고문서학, 역사학, 한문학, 기록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에 대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서 기존의 「화성성역의궤」에 대한 한글언해와 함께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화성성역의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화성성역’의 구성체제와 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한문본 「화성성역의궤」와의 비교를 통하여 일종의 한글본 「화성성역의궤」를 구성해보는 시도를 하였다.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21-H00025).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부교수(gabinja@aks.ac.kr)
접수일: 2009년 5월 30일 최초심사일: 2009년 6월 1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7일

「화성성역의궤」의 한문본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한문본과 일치하는 내용에 대한 유형화 및 재구성을 시도하였으며 한문본에 없이 ‘화성성역’에만 나타나는 내용도 살펴보았다. ‘화성성역’이 완질이 아니어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문본과 일치하는 내용을 한문본의 목차에 따라 배열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要語: 덩니의궤, 한글, 화성성역의궤, 정리의궤, 한글의궤, 의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pecific contents of ‘Hwasheongsheongyeok’, a part of ‘Dyeongni-ugwe’, and compare them with the Classical Chinese version of *Hwaseong-seongyeok-ugwe*, based on the bibliographical analysis of the Korean version of ‘Dyeongni-ugwe’.

‘Hwasheongsheongyeok’ which is a part of the Hangul Ugwe is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patterns of translation from the original Chinese text into Hangul. It is because it provides rich information about how to write in Hangul the names of objects, places and other terms originally written in Chinese. Furthermore, it helps figure out the kinds and volumes of the original documents contained in and the original materials used to write the Hangul Ugwe.

‘Hwasheongsheongyeok’ is primarily useful as fundamental materials for the studies of bibliography and Korean history, and further for the research in diverse areas, including paleography, history, Chinese literature, and archival studies, based on its contents. In addition, it’s also valuable in that it can be used to check the new records of “Hwaseongseongyeok” not included along with the Hangul Eonhae of *Hwaseong-seongyeog-ugwe*, regarding the Suwon Hwaseong, the world cultural heritage of UNESCO.

In the study, the researcher investigated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Hwasheongsheongyeok”, and tried to organize a kind of the Hangul version of *Hwaseong-seongyeog-ugwe* by comparing them with the Chinese version of *Hwaseong-seongyeog-ugwe*, classifying the contents included in both versions, and identifyng the parts only contained in “Hwasheongsheongyeok.” Since it was not a complete book, only the parts which corresponded to the Chinese version are presented in the appendix of this study, according to the table of contents of the Chinese version.

Key words: Jeongni-ugwe, Hangul, Dyeongni-ugwe, *Hwaseong-seongyeog-ugwe*, ugwe, Hangul ugwe. Hwasheongsheongyeok

1. 서 언

의궤는 왕실 및 국가 의례 등의 행사 전반에 대한 실행 보고서와 같은 문헌으로, ‘儀禮의 軌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현재 약 3,430책의¹⁾ 조선 왕조 의궤가 200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그 가치는 민족문화유산으로써 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대상으로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의궤 중에 한문본 「華城城役儀軌」는 화성성역의 전말을 수록한 기록물로써 필사본으로 현전하는 대부분 의궤와는 달리 인쇄본 의궤이다. 수많은 의궤 중에 화성성역의궤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체제를 달리하지만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글의궤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글의궤로는 「조경년진작정례의궤」²⁾와 「덩니의궤」가 있다. 이 중에 「덩니의궤」의 ‘화성성역’이 한문본 「화성성역의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문헌은 내용면에서 의궤가 가지는 일반적인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의궤 연구에서 주목되었던 복식·건축·공예·미술·음악·고문헌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연구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기술 언어가 ‘한글’이라는 데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데, 한자로 표기된 물품명, 지명, 음식명 등 각종 용어의 고유어 표기와 한자음의 한글 표기를 통해 당대인의 언어생활, 특히 왕실의 언어생활을 살펴볼 수 있고, 또 통시적 관점에서 한글의 음운·음성 현상의 변화를 고찰해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궤의 체제면에서 일기체 형식이라는 비교적 초기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기체 형식의 한자본 의궤와는 다른 기술방식을 취하고 있어 의궤

-
- 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546종 2,940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287종 490책의 조선왕조의궤가 2007년 6월, 제8차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조선왕조 의궤’ 관련 항목 참고.
 - 2)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한 후 純祖內外에게 존호를 올린 것을 기념하여 자경전에서 進爵禮를 행한 사실을 기록하여 1827(순조 27)에 간행한 활자본 의궤 「慈慶殿進爵定禮儀軌」의 한글본이다. 이 의궤는 한문본 6부와 함께 한글본 3부가 작성되었는데, 그 체제는 한문본과 같이 총 3권에 각 권에 주제별로 항목을 설정하여 각종 문서와 기록물을 정리하였다.

체제의 통시적 연구에서도 특징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한문본 의궤에 수록되지 않은 각종 기록을 통해 원행과 화성성역의 전말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과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로서의 의미도 매우 크다.

「화성성역의궤」의 편찬 간행 및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선행의 연구³⁾에서 많은 내용이 다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덩니의궤」에서 화성성역의 내용을 다룬 「화성성역」의 내용, 체제 등을 화성성역의궤 와 비교해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 소개 자료로서 「덩니의궤」에 대한 서지적 특징, 편찬주체와 작성시기 등의 문제는 서지적으로 분석한 필자의 기존 연구에서⁴⁾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책의 필사 연대를 알려주는 관련 기록이 없지만 수록된 내용을 분석하여 원행과 화성성역의 완공을 復命한 1797년 9월 이후부터 활자본 「화성성역의궤」가 간행된 1800년 5월 이전에 이 문헌이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현재 한글본 「덩니의궤」는 결본이 많다. 현전본 수록 내용의 시기적 범위를 살펴보면, 園幸 기록은 1796년 이후 내용만 수록하고 있어서 「園幸乙卯整理儀軌」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 반면 화성성역 관련 기록은 그 시기가 「화성성역의궤」의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 내용 또한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

3) 「華城城役儀軌」를 다룬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동욱, “〈화성성역의궤〉의 건축사적 의의,” 「진단학보」 제93호(2002).
 김문식, 신병주, 「조선 왕실기록문화의 꽃, 의궤」(돌베개, 2005).
 김연주, “영건의궤류의 차자 표기 연구-표기법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 45집(2004).
 김준혁,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서울: 여유당, 2008).
 박정혜, “〈화성성역의궤〉의 회화사적 고찰,” 「진단학보」 제93호(2002).
 유완상, 박천우, “〈화성성역의궤〉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소 논문집」 제2권 1호(1993), 장안대학 지역연구소.
 이달호,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건설」(서울: 해안, 2008).
 최홍규, “〈화성성역의궤〉의 구성과 역사적 의의,” 「진단학보」 제93호(2002).
 최홍규, 「정조의 화성 경영 연구」(서울: 일지사, 2005).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서울: 효형출판, 1998).
 황금연, 「儀軌類의 漢字 借名 表記 研究」(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4) 옥영정, “한글본 「덩니의궤」의 서지적 분석,” 「書誌學研究」 제39집(2008. 6).

서 ‘화성성역’에 대해서는 한문본과 비교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이 글에서는 ‘화성성역’의 내용을 성역 사업의 시기적 구분에 따라 ‘城役以前의 계획시기’, ‘城役時期’, ‘城役以後의 시기’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그 서술방식과 구성상의 특징을 「화성성역의궤」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구성 비교를 위해 두 의궤의 동일 내용 기사를 대조하고, ‘화성성역’의 기사를 한문본의 목록에 따라 배열함으로써 불완전하나마 ‘한글본 「화성성역의궤」의 구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한글자료 ‘화성성역’의 내용과 특징

「화성성역의궤」의 한글자료인 ‘화성성역’은 零本으로 남은 「덩니의궤」12권 12책 가운데 권40, 46, 47, 48의 4책에 해당한다. 表題는 4책 모두 ‘整理儀軌’로, 卷首題는 ‘덩니의궤’로 표기되어 있다. 권수제의 아래에 ‘화성성역’이라는 부제와 권차를 썼고 표지에는 “城役”이라 기록하였다. 비록 본문 중에 권41-45의 내용이 결본이지만 전체적인 구성을 이해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또한 ‘화성성역’은 한문본으로만 알려진 화성성역의궤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문본으로만 남아있는 「화성성역의궤」를 한글로 수록한 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 내용은 1794년(정조 18) 1월부터 1796년(정조 20) 9월까지 진행되었던 화성 성곽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권40에는 1793년 12월부터 1794년 4월 6일까지 화성 성역과 관련된 제반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권 46은 1795년 9월 27일~1796년 4월 14일까지의 내용을, 권47은 1796년 4월 16일~8월19일의 내용을, 권48은 1796년 8월 21일~1797년 1월 29일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차의 구분은 특별한 기준이 없이 분량에 따라 조절하여 나누었다.

이 한글자료의 큰 특징은 모든 기록이 날짜순으로 수록된 체계라는 것이다.

이는 곧 화성성역의 진행과정을 순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성성역의궤」의 날짜별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크다.

이 장에서는 한글자료의 내용을 시기 순서에 따라 성역이전의 계획시기, 성역 시기, 성역이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성역이전의 계획시기

성역이전의 계획은 권40의 제29장까지의 내용으로 1794년 1월 6일까지이다. 권40의 제 30장부터는 1794년 1월 7일 실제 공사가 시작된 이후 4월 6일까지의 기록이다. 성역 이전의 계획은 1793년 1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처음에 1793년 12월 6일에 있는 정조의 전교와 수원 성역의 배경에 대한 내용을 먼저 수록하였다. 그 내용은 과거시점인 1월 12일 이후로 진행된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부의 호칭을 화성으로 바꾸고 수원부사를 유수로 승격시키는 등 체제를 정비하고 체제공을 수원부 유수로 임명한 것, 수원유수에게 성역에 소용되는 돌을 있는 곳을 찾게 하는 등 성역 시행의 방책을 묻는 것, 그 해 5월에 체제공은 영의정으로 들어오고, 이명식이 수원부유수가 된 것이나 11월에 조심태에게 성역의 재력을 운용할 방법과 성역방책을 묻는 것 등이다. 이때에 성곽의 재료, 모양, 비용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793년 12월 6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성역에 관한 각종 啓辭, 傳教, 筵說, 關文 등이 전해지고 있다. 성역을 감독할 책임자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성역 전반의 일에 관하여 체제공 등과 의논한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성터와 수원부에 대한 그림, 성의 제도에 대한 명, 반계 유형원의 후손을 성균관 채주로 증직시키는 내용도 확인된다.

성 둘레와 공역의 진행 속도에 대해 정조는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조심태와 이유경이 화성 성터 등을 그린 도형을 올리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성역에 소용되는 재목을 구하는 일에 안면도에 있는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 장산곶의 금표 밖 소나무를 베는 것과 베고 난 후의 나뭇가지로 灰를 구을 때 쓰도록 하는

것, 호서지방 주변의 각 읍에 분담하여 소용될 가마니를 짜서 운반하도록 하는 것 등을 윤택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⁵⁾

그리고 고유제 및 상량할 때 필요한 상량문 및 찬품과 관련하여 참고용으로 「天機大要」의 내용을 따른 것도 확인된다. 아울러 정조는 화성에 성을 쌓는 계획에 대하여 內下城華籌略으로 조목을 만들었다. 모두 8조목인데, 分數, 재료, 濠塹, 터다짐, 돌을 떠내는 일, 길을 닦는 일, 수레를 만드는 일, 성을 쌓는 일이 그것이다.

1794년 1월 4일에는 비변사에서 일관이 두 가지 날짜를 정해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화성성역 날짜를 정하여 보고하였다. 돌 뜨기 1월 7일, 성터담기 2월 25일, 남북문루와 수문공사는 2월 28일로 그 날짜가 정해졌다.⁶⁾ 성역을 감독할 여러

- 5) 「당년의계」 권40 제18장. “십팔일 입시(入侍) 시에 감동 당상(監董堂上) 도심태(趙心泰) 소계(所啓)라...<중략>... 명춘(明春) 시역(始役) 후의 스성 문누(門樓)와 초루(譙樓)를 맞당히 차례(次第)로 영건(營建) 후를 디소입(大小入) 지목(材木)과 연목(椽木)을 만일 섬에 술을 청득(請得)지 못후고 또 슈상금양처(水上禁養處)의 버혀오디 못후은 즉 장춧 성조(成造)홀 길히 업스오니 각 향 큰 지목 일천 쉼(株)와 큰 연목 일천이빅 쉼 안면도(安眠島)의 풍낙송(風落松)과 장산곶(長山串) 금표(禁標) 밧기 송목(松木)을 허작(許斫) 후와 본도(本道) 병선(兵船)과 방선(防船)으로 지운(載運) 후게 후고 작벌(斫伐) 후며 느리우는 갑과 선인(船人) 격군(格軍)의 낭미(糧米)를 각각 본도 공곡(公穀)으로 실수(實數)를 조차 회감(會減) 후게 후고 기여(其餘) 지목 연목은 소입(所入)을 쏘와 슈상금양처(水上禁養處)의 허작(許斫) 후 뜻으로 비국(備局)으로서 각 회도(該道)의 지위(知委) 후야 뼈를 미쳐취용(取用) 후와 대단히 건기(愆期) 후는 폐(弊) 업습게 후는 거시조타 니르오니 대신의 의논이 이 곳조매 감히 알외는이다 상왕 념상(領相)의 뜻이 엇더후노 념의 정(領議政) 홍낙성(洪樂性)왕 신도 별노 다른 소견(所見)이 업스오니 이디로 허작 후미 조스와이다 상왕 의위지(依爲之) 후디...<중략>... 심태왈 성역(城役) 시의 영건(營建) 후을 지목(材木)을 이의 앙청몽운(仰請蒙允) 후엿스오니 허다(許多) 후은 지목을 안면도(安眠島)의 가 작취(斫取) 후은 즉 그 가지가 장춧 적지 아니 후을 거시오 또 안흥진(安興鎭) 근처의 회(灰)급스를 돌히 심히 만스오니 이 지목 버히은 가지로 안흥진으로 선운(船運) 후와 회진(該鎭) 첨스(僉使)로 후여곰 회를 급스와보내우게 후은 즉 소비(所費)는 만치 아니 후고 쓰우기는 심히긴(緊) 후오니 이디로 슈신(帥臣)과 첨스의게 분부(分付) 후게 후고 또공석(空石) 드우는 거시 장춧 만스올디 이는 갑시 잇스와도 엇기 어렵스오니 문져 일만 남(立)만 호서(湖西) 연변(沿邊) 각 읍의 분정(分定) 후와 선운(船運) 후야 보내을 뜻으로 회도(該道) 도신(道臣)의게 분부 후오미 엇더 후올디 상왕 의위지(依爲之).”
- 6) 「당년의계」 권40 제27장. “화성(華城) 성역(城役) 시역(始役) 후을 각 일(日)을 일관(日官)으로 후여곰 추척(推擇) 후은즉 성지(城址) 기기(開基)는 정월 이십오일 묘시(卯時)와 이월 십삼일 묘시 길 후고 남북성(南北城) 두 문누(門樓) 시역(始役)은 이월 십삼일 묘시와 십육일 진시(辰時) 길 후고 슈문(水門) 시역은 이월 이십오일 묘시와 이십육일 진시 길 후고

관리들의 임명에 관하여 체제공이 아되고, 예조에서 고유제에 쓰일 축문의 형식과 쓰일 제물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담당 관청에 하달하였다. 당시 고유제를 위하여 준비한 제물은 쌀밥 4그릇, 떡 4그릇, 고기탕 3그릇, 고기구이 3그릇, 생선탕 3그릇, 생선구이 3그릇, 나물 3그릇, 과일 5그릇, 술 3잔, 닭·돼지 2마리 껍백 두 끝 비단(검은 비단과 붉은 비단 각 7척 혹은 12척)⁷⁾ 이었다.

<표 1>은 ‘화성성역’의 첫 부분인 권40을 바탕으로 그 구성과 내용을 정리해본 것이다. 내용의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그 내용을 관찰사료나 한문본 『화성성역의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록문헌으로 정리하여 표시하였다.

<표 1> 한글본 『덩니의궤』 권40 “화성성역 데일”의 구성과 내용

번호	일시	유형	내용	면수	수록문헌
1	1793년12월6일	傳敎	수원성역의 담당관리와 경비에 대해 명함.	1a	화, 일, 승
2	..	설명	수원성역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하동일)	1b	
2-1	1793년1월12일	傳敎	수원부의 호칭을 화성으로 바꾸고 수원부사를 유수로 승격시키는 등 체제를 정비.	1b	일, 승, 비
2-2	1793년1월12일	傳敎	체제공을 수원부유수로 임명.	3b	일, 승
2-3	1793년1월12일	筵說	전교의 뜻을 이해시킴.	4a	화, 일, 승
2-4	1793년1월12일	筵說	수원유수에게 성역에 소용되는 돌이 있는 곳을 찾게 하는 등 성역시행의 방책을 물음.	4b	
2-5	1793년3월	설명	체제공은 영의정으로 들어오고 이명식이 수원부 유수가 됨.	5a	
2-6	1793년11월16일	筵說	조심태에게 성역의 재력을 운용할 방법을 물으신 후 그가 아뢴대로 하게 함.	5a	화, 실, 일, 승

부석(浮石) 지역은 정월 초칠일과 십삼일이 길하고 각각 지역하는 날 먼저 고유제(告由祭)를 행하고 오리라 하고니 어느 날도 거행(舉行)하올디 언왈(傳曰) 성지 기리는 정월 이십오일 문누 지역은 이월십육일 슈문 지역은 이십육일 부석 지역은 정월초칠일도 하게 하라[성문누(門樓)와 슈문(水門) 지역(始役)은 이월 이십팔일 진시로 기부표(改付標)하디].

7) 『덩니의궤』 권40 제29장. 제물(祭物)을 후록(後錄)하야 관즈(關子)하니 상고(相考) 시행(施行)하라.

백반(白飯) 스기(四器) 병(餅) 스기 육탕(肉湯) 삼기(三器) 육적(肉炙) 삼기 어탕(魚湯) 삼기 어적(魚炙) 삼기 차(菜) 삼기 실과(實果) 오기(五器) 쥬(酒) 삼잔(三盞) 상주(翔走) 이싱(二牲)[상(翔)은 날짐승이니 둥이오 주(走)는 기는 짐승이니 돛치오 이싱(二牲)은 두 가지 짐승이란 말습] 껍백(幣帛) 양단(兩端)[현훈증(玄纁纁) 각 칠척(七尺) 혹 십이척(十二尺)].

「華城城役儀軌」의 한글자료에 관한 연구

2-7	1793년11월27일	筵說	조심태에게 성역방책을 물음.	6a	일, 승
2-8	1793년12월6일	筵說	성역을 감독할 적임자에 대해 의논함.	6a	화, 실, 일, 승
3	1793년12월6일	啓辭	전수원부사조심태가 성역전반의 일에 관해 아뢰어 이에 대해 체제공 등과 의논하여 정함.	7a	화, 일, 승
4	1793년12월8일	啓辭	비변사에서도 청과별간역을 임명하는 일에 관하여 아뢰어 윤희 받음.	11b	화, 일, 승
5	1793년12월8일	筵說	화사를 데리고 가서 성터와 수원부 전체를 그려오게 하다. 그리고 성의제도에 관하여 자세하게 명함.	12a	화, 실, 일, 승
6	1793년12월8일	啓辭	감동당상관 조심태가 성역소문을 듣고 백성들이 무작정 몰려들지 않도록 모군을 미리 분배하게 하기를 아뢰.	14b	화, 일, 승
7	1793년12월8일	啓辭	좌승지 서영보가 '훈련대장조심태가감동당상관을 겸하게 된 일로 훈련대장의 임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여쭙고 명을 받음.	15a	일, 승
8	1793년12월9일	설명	훈련대장 조심태와 도청이유경이 화성성터를 살펴러나감.	16a	
9	1793년12월10일	傳敎	유형원의 <반계수록> 보유편에 수록된 '수원에 성을 쌓는것'에 관한 내용이 지금의 실정과 맞음을 크게 기뻐하며 그 후손을 상군관 책주로 증직시킴.	16a	화, 실, 일, 승
10	1793년12월13일	筵說	조심태와 이유경이 화성성터 등을 그린 도형을 올리고 보고하자 성 둘레와 공역의 진행속도에 대해 물으심.	17a	화, 일, 승
11	1793년12월18일	啓辭	1. 감동당상조심태가 성역에 사용되는 재목을 구하는 것에 관하여 아뢰. 2. 역사를 시작할 때 행할 고유제에 관하여 아뢰. 3. 문루와 장대 상량할 때 필요한 상량문에 관하여 아뢰.	17b	화, 일, 승
12	..	籌略	丙下城華籌略(상께서 내리신 화성에 성을 쌓는 계획)	21a	화
13	1794년1월4일	啓辭	비변사에서 일관이 올린 화성성역 날짜 등을 보고하자 상께서 정하심.	27a	화, 일, 승
14	1794년1월4일	啓辭	총리대신 체제공이 성역을 감독할 여러 관리들의 임명에 관해 아뢰고, 고유제에 쓰일 축문의 형식에 관해 아뢰.	28a	화, 일, 승
15	1794년1월6일	關文	예조에서 고유제에 쓰일 제물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담당관청에 하달.	28b	화
16	1794년1월6일	關文	예조에서 고유제 장소와 제사지내는 법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하여 담당 관청에 하달.	29a	화
17	1794년1월7일	설명	성역에 쓰이는 돌을 뜨는 곳인 '숙지산'에 대하여 서술.	29b	
18	1794년1월7일	祝文	孰知山浮石告由祭文	30b	화
19	1794년1월7일	설명	'숙지산'과 함께 성역에 쓰이는 돌을 뜨는 곳인, '여기산', '권동', '팔달산'에 관하여 서술.	31a	화
20	1794년1월7일	傳敎	경상좌병사 윤범행이 진주성첩도형을 허술하게 그려 올린 일로 그를 정계함.	33a	일, 승
21	1794년1월14일	筵說	상께서 현릉원에 전알하신 뒤 화성성터를 둘러봄. '花山',	33b	화

			‘柳川’, ‘華城’의 의미를 말씀하신 뒤 성의모양에 대해 말씀하심.		
22	1794년1월15일	筵說	1. 팔달산에 오르시어 공사형편을 살펴보신 뒤 ‘장대’를 세우게 함. 2. 인가를 성안에 두게 하시다. 3. 성을 쌓는 모양에 대해 말씀하시다.	34b	화
23	1794년1월22일	啓辭	감동당상 조심태가 수원부판관을 책응도청에 임명하도록 아뢰어 윤희 받음.	36b	화, 일, 승
24	1794년1월25일	祝文	城址始役告由祭文	37a	화
25	1794년1월25일	설명	성터의 둘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서술.	38b	화
26	1794년2월10일	啓辭	비변사에서 ‘호남 우수사가 성역에 쓰일 재목을 실정에 관계없이 일정량 배분하여 바치게 한 폐단’을 아뢰자, 상께서 그를 벌하고 다른 곳에서 같은 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함.	43b	화, 일, 승
27	1794년2월10일	啓辭	1. 호조판서 심이지가 ‘성역에 소용되는 양식을 조달하는 일’에 관하여 아뢰어 윤희 받음. 2. 감동당상 조심태가 성역의 식량, 경비, 감독하는 관리 임명 등에 관하여 아뢰어 윤희 받음.	44b	화, 일, 승
28	1794년2월12일	傳教	충청수사 이윤겸이 ‘화성문루의 재목을 배에 실어 나른 일’을 장계로 보고하자, 상께서 안심하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보고하게 함.	45b	화, 일, 승
29	1794년2월26일	傳教	화성유수의 후임자를 추천하게 함.	46a	일, 승
29-1	1794년2월26일	설명	비변사에서 수원부유수 조심태를 추천하자 상께서 낙점.	46a	일, 승
30	1794년2월28일	祝文	南門開基告由祭文	46a	화
31	1794년2월28일	祝文	北門開基告由祭文	47a	화
32	1794년2월28일	祝文	水門開基告由祭文	48a	화
33	1794년2월28일	狀啓	수원유수로 임명된 조심태가 ‘전수원유수 이명식으로 부터 발병부를 전해 받았음’을 보고.	49a	화
34	1794년3월1일	설명	북쪽에서 남쪽으로 水門을 만든 것에 관해 서술.	49b	화
35	1794년3월4일	有旨	수원유수 조심태가 장계로 ‘화성문루의 재목을 충청수영에서 실은 배가 모두 정박하였음’을 보고하자, 상께서 안심하시고 계속 보고하라고 함.	51a	화, 일, 승
36	1794년3월5일	啓辭	영의정 홍낙성이 전라감사 이서구의 장계를 보고서 이대로 시행할 것을 아뢰.	51a	화, 일, 승
37	1794년3월8일	啓辭	비변사에서 경상감사 조진택의 장계에 대해 병선을 사용하게 하고 상납미는 내년 봄까지 미룰 수 없다고 아뢰. 이에 상께서 영남의 나무를 사용하지 않거나 내년까지 기다려 운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52a	화, 일, 승
38	1794년3월13일	啓辭	비변사에서 앞서 경상감사 조진택의 장계내용으로 인해 수원유수 조심태와 의논하니, 영남의 나무는 제외하고 호남에서 실어 나르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상께서도 윤희함.	54a	화

「華城城役儀軌」의 한글자료에 관한 연구

39	1794년3월11일	狀啓	전라감사 이서구가 비변사의 명대로 '화성문루의 재목을 배어 운반하는 좌우수영의 거행절차'를 조사하여 보고.	54b	화
39-1	1794년3월11일	傳敎	이서구가 아뢰어 우수영의 폐단에 대하여 징벌할 것을 명함.	56b	화
40	1794년3월15일	狀啓	수원유수 조심태가 진목정과 팔달산 근처에서 무덤을 옮기기를 원하는 사람의 명단을 보고함.	57a	화
40-1	1794년3월16일	傳敎	산주로서 명단에 오른 조수와 윤발에 대해 은전을 베풀고, 성역으로 인한 폐해가 있으면 바로 보고하게 함.	57b	화, 일, 승
41	1794년4월1일	狀啓	수원유수조심태가 수원부 관관 정동협으로부터 '성역에 쓸 재목을 실은 배가 난파된 사실을 전하는 첩정'을 받고서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빠진 재목을 건지도록 명하였음을 보고.	58b	
42	1794년4월2일	狀啓	경기감사 서용보가 남양부사 이익진으로부터 '충청도 서산군의 방선이 난파되었으나 재목과 인명을 모두 구했다는 첩정'을 받았음을 보고하고,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전을 베풀기를 청함.	60b	일, 승
42-1	1794년4월2일	傳敎	공을 세운 윤성손의 帖加를 성급하도록 명함.	62a	일, 승
43	1794년4월3일	狀啓	수원유수 조심태가 비변사의 관문을 받고서 호서의 재목 중 실어 나르지 못한 것의 양과 진행상황 등을 보고.	63a	화
44	1794년4월6일	狀啓	수원유수 조심태가 마량의 배가 난파될 때 인명을 구한 강귀재에게 상전을 베풀 일과 바다에서 건진 재목의 수를 보고, 상께서 강귀재에게 상전을 내리도록 명함.	65a	일, 승

* 수록문헌의 약칭: 화-화성성역의궤, 일-일성록, 승-승정원일기, 비-비변사등록, 실-조선왕조실록.

2.2 성역시기

공식적인 성역시작은 1794년 1월 7일 숙지산에서 고유제를 지내고 돌을 뜨는 것에서부터였다. 당시 체재공이 지어올린 고유문은 한문본 「화성성역의궤」에도 수록되었는데 한글본에서는 이를 한글로 풀었다. 고유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륭(乾隆) 59년(1794, 正祖 18) 갑인 정월 기축 삭 초7일 을미에 국왕은 신하 행 부호군(行副護軍) 이유경을 보내어 숙지산(孰知山) 신령에게 삼가 고하노니, 엿드려 생각하건대 “오직 하늘이 만물을 내시매 그 뜻이 나라를 위하심

이로다. 돌이 아니면 성이 되지 못할 것이니 원컨대 신령은 아끼지 말지어다.”
삼가 생[희생], 폐[폐백], 예제[술], 자성[서직], 서품[모든 제물]으로써 이에 밝
게 바침을 베푸노니 모두 흠향하리로다.[총리대신 체제공이 지어 올림.]⁸⁾

정조는 갑인년(1794)의 원행중인 1월 14일에는 현릉원에 전알한 뒤 화성 성터
를 둘러보고 ‘花山’, ‘柳川’, ‘華城’의 의미와 성의 모양에 대해 말하기도 하였다.
이튿날에도 팔달산에 올라 공사 형편을 살펴본 뒤 ‘장대’를 세우게 하고, 민가를
성 안에 두게 하고, 성을 쌓는 모양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이후로 4월 6일 까지는
성역과정 중에 있었던 식량과 경비의 조달, 사건 사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 40의 제 30장부터 시작되는 성역의 시작은 권 48의 제 22장에서 마무리된다.
결락된 권41-45의 내용은 권 40에 이어서 성역과정에 일어났던 각종 명령과 전
교, 계사, 장계, 설명 등으로 이루어지고 성역의 과정과 관련된 1년 6개월여의
일들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권 46은 1795년 9월 27일부터 시작한다. 권 46부터는 화성의 완공을 1년 정도
앞둔 시점이어서 각 건물들이 하나 둘씩 완성되고 있다. 1795년 10월 3일에는
迎華亭이 완성되었으며, 이어서 蒼龍門(10월 4일), 南空心墩(10월 5일), 華西門
(1796년 1월 8일), 西北空心墩(1796년 3월 10일), 南水門(1796년 3월 25일), 東暗
門(1796년 3월 25일), 北暗門(1796년 3월 27일), 東北弩臺(1796년 4월 14일),
東北舖樓(角巾臺)(1796년 5월 15일), 西砲樓(1796년 5월 30일), 烽墩(1796년 6
월 17일), 西暗門(1796년 6월 18일), 東二舖樓(1796년 7월 3일), 南砲樓(1796년
7월 9일), 西北角樓(1796년 7월 9일), 東一舖樓(1796년 7월 10일), 東砲樓(1796

8) 「덩니의궤」 권40 제30장. 유건릉오십구년세차(維乾隆五十九年歲次) 갑인 정월 기륙 삭
초칠일 을미에 국왕은 신하형부호군 니유경(李儒敬)을 보내어 숙지산 신령에게 삼가 고희
노니 복이(伏以)

유턴산물(維天產物) 오직 하늘이 물(物)을 내시매
기의위국(其意爲國) 그뜻이 나라를 위하심이로다
비석불성(匪石不城) 돌이 아니면 성(城)을 못홀디니
원물신석(願勿神惜) 원컨대 신령은 아끼지 말지어다
삼가 생(牲)[희생(犧牲)] 폐(幣)[폐백(幣帛)] 예제(醴齊)[술] 조성(棗盛)[서직(黍稷)] 서품
(庶品)[모든 제품(祭品)]으로써 이에 붉이 천(薦)호를 베푸노니 거의 흠향하리로다[총리대
신 체제공 제진].

년 7월 16일), 東北空心墩(1796년 7월 19일), 華陽樓(1796년 7월 20일), 東南角樓(1796년 7월 25일), 中舖舍(1796년 8월 6일), 西南暗門(1796년 8월 11일), 東甕城(1796년 8월 14일), 西甕城(1796년 8월 14일), 西舖樓(1796년 8월 18일), 迎華館((1796년 8월 29일), 甬道(1796년 9월 7일)⁹⁾ 등이며 마지막에 女牆(1796년 9월 9일)을 끝으로 화성의 성역은 마무리된다.

각 건물이 완공될 때마다 해당건물에 대한 설명을 실었고 마지막의 9월 9일에는 화성의 전체모습과 성 안팎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성의 건물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명한 부분은¹⁰⁾ 門樓, 暗門, 水門, 敵臺, 將臺, 弩臺, 空心墩, 烽墩, 雉城, 角樓, 砲樓, 舖樓, 舖舍 등의 성의 각 건물 명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3 성역이후의 시기

성역이후의 시기는 1796년 9월 10일 감동당상관 조심태와 도청 이유경이 성역

9) 甬道에 대하여 「덩니의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용도의 이름은 우리나라에 일찍 없었으나 진한(秦漢)적부터 있는 제도이다. 그 제도가 두 편에 담을 쌓아 좁은 길을 길게 통하여 혹 양식을 운반하며 혹 복병을 감추게 하니 성을 쌓음에 이 길이 없을 수 없다.”

10) 「덩니의궤」 권48 제21장. “문누 네히니 당안문(長安門)[북문(北門)] 팔달문(八達門)[남문(南門)] 창룡문(蒼龍門)[동문(東門)] 화서문(華西門)[서문(西門)]이오 암문(暗門) 다스시니 남암문(南暗門) 동암문(東暗門) 북암문(北暗門) 서암문(西暗門) 서남암문(西南暗門)이오 슈문(水門) 들히니 북슈문(北水門)[화홍문(華虹門)] 남슈문(南水門)이오 적터(敵臺) 네히니 북문좌우적터(北門左右敵臺) 남문좌우적터(南門左右敵臺)오 장터(將臺) 들히니 서장터(西將臺) 동장터(東將臺)오 노터(弩臺) 들히니 서노터(西弩臺)[장터(將臺) 뒤]동북노터(東北弩臺)오 공심돈(空心墩) 세히니 서북공심돈(西北空心墩) 남공심돈(南空心墩) 동북공심돈(東北空心墩)이오 봉돈(烽墩) 하나히오 치성(雉城) 여덟이니 북동치(北東雉) 서일치(西一雉) 서이치(西二雉) 서삼치(西三雉) 남치(南雉) 동삼치(東三雉) 동이치(東二雉) 동일치(東一雉)오 각누(角樓) 네히니 동북각누(東北角樓)[망화슈류정(訪花隨柳亭)] 서북각누(西北角樓) 서남각누(西南角樓)[화양누(華陽樓)] 동남각누(東南角樓)오 포루(砲樓)[화포(火砲) 놋누(樓)] 다스시니 북동포루(北東砲樓) 북서포루(北西砲樓) 서포루(西砲樓) 남포루(南砲樓) 동포루(東砲樓)오 포루(舖樓)[치성(雉城) 우회 군포루(軍舖樓)] 다스시니 동북포루(東北舖樓)[각건터(角巾臺)] 북포루(北舖樓) 서포루(西舖樓) 동이포루(東二舖樓) 동일포루(東一舖樓)오 포사(舖舍) 세히니 동포사(中舖舍) 서남포사(西南舖舍)[암문(暗門) 우회 집] 니포새(內舖舍)라.”

을 마치고 조정에 들어오는 이후부터이다. 한글자료의 권 48 제 23장 이후의 글로, 주 내용은 監董한 신하 및 장인들에게 시상하게 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고 잔치를 베푼 것이다. 특히 賞典은 정리의례 당상관이 종류별로 나누어 책자를 만들어 비변사와 수원부에 보관하고 「승정원일기」, 「내각일력」, 「일성록」 등에 내용을 베끼게 하라고 명하였으며, 실제로 「華城城役賞典」이 별도로 작성되어 전해진다. 상전 중에는 특별히 뛰어난 석공에게 별도의 상을 주게 한 기록이 있으며 그것은 성역 장인 중에 으뜸이 석공으로 서울의 朴尙吉, 崔興世, 강화의 차어린노미(車於仁老味), 개성부의 高福仁, 강원도의 金永大, 충청도의 姜岳只, 전라도의 金成孫, 경상도의 徐貴三, 황해도의 韓福起, 평안도의 李廷彬 등이었다. 이들에게는 특별히 품계를 올려주었으며 모두 팔도 각 지역에서 뛰어난 석공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¹¹⁾

성역이 끝나고 열흘 뒤 城神祠를 세워서 위판을 봉안하고 고유제를 지내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화성성역’에는 이 때 봉안의식 및 고유제의 전 과정을 상세히

11) 「당년의례 권48 제27장. 하교(下教)호오샤디 금번(今番) 성역(城役) 공노(功勞)에 석공(石工)이 모든 장인(匠人)의 우(右)히 이시니 상격(賞格) 바긔 맞당히 별상(別賞)이 이실디라 경편슈(京邊首) 박상길(朴尙吉)과 최흥세(崔興世)와 강화 편슈(江華邊首) 차어린노미(車於仁老味)와 기성부 편슈(開城府邊首) 고복인(高福仁)과 강원도 편슈(江原道邊首) 김영대(金永大)와 통청도 편슈(忠淸道邊首) 강악기(姜岳只)와 전라도 편슈(全羅道邊首) 김성손(金成孫)과 경상도 편슈(慶尙道邊首) 서귀삼(徐貴三)과 황해도 편슈(黃海道邊首) 한복기(韓福起)와 평안도 편슈(平安道邊首) 이정빈(李廷彬) 등을 체계(帖加) 성급(成給)히디 당년의례정(整理儀軌廳)이 각각 읍명(邑名)을 메워 히읍(該邑)으로 바로 보내게 하라. 「日省錄 正祖 20년 9월 10일: 又敎曰, “今番城役功勞, 石工居諸工之右, 賞格之外, 當有別賞. 京邊首朴尙吉·崔興世·江華邊首車於仁老味·開城府邊首高福仁·江原道邊首金永大·忠淸道邊首姜岳只·全羅道邊首金成孫·慶尙道邊首徐貴三·黃海道邊首韓福起·平安道邊首李廷彬等, 帖加成給, 整理儀軌廳, 各填邑名, 直送該邑.” 「承政院日記 正祖 20년 9월 10일: 傳曰, “今番城役功勞, 石工居諸工之右, 賞格之外, 當有別賞. 京邊首朴尙吉·崔興世·江華邊首車於仁老味·開城府邊首高福仁·江原道邊首金永大·忠淸道邊首姜岳只·全羅道邊首金成孫·慶尙道邊首徐貴三·黃海道邊首韓福起·平安道邊首李廷彬等, 帖加成給, 整理儀軌廳, 各填邑名, 直送該邑.” 「華城城役儀軌 卷1, 傳敎, 丙辰 9월 초10일: 傳曰, “今番城役功勞, 石工居諸工之右, 賞格之外, 當有別賞. 京邊首朴尙吉·崔興世·江華邊首車於仁老味·開城府邊首高福仁·江原道邊首金永大·忠淸道邊首姜岳只·全羅道邊首金成孫·慶尙道邊首徐貴三·黃海道邊首韓福起·平安道邊首李廷彬等, 帖加成給, 整理儀軌廳, 各填邑名, 直送該邑.”

수록하고 있다.

1796년 10월 16일에는 洛南軒에서 落成宴을 설행하였고¹²⁾ 이 때 화성전경을 그린 契屏을 나누어주기도 하였는데, 화성 전경의 산천, 성곽, 궁실, 누대를 일일이 초본에 모사하되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의 경치를 큰 병풍 3좌에 각각 그려서 乙覽에 바치고, 그 남은 재료로 각 도감에 나누어주는 전례를 써서 총리대신과 감동 당랑이 모두 한 좌씩 나누며 감동한 여러 관원 또한 紙本에 그려 족자 하나씩 나누어주었다.¹³⁾ 이것을 얻은 사람들은 각각 집 안에 대대로 전하는 보배로 삼고, 도성의 재상 중 구경 못한 자들은 그 그림을 빌려 서로 한 번 보기를 기쁘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단원 김홍도가 화성 16경을 춘추 8경으로 나누어 그린 병풍에 대한 설명도 있다. 이 그림에 대한 기록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정조가 화성에 행차하였던 1797년 1월 29일을 끝으로 「덩니의궤」의 화성성역 부분은 마무리된다. 방화수류정에서 활쏘기를 하고 구경하던 사람 중 10인에게

- 12) 「덩니의궤」 권48 제43장. 이틀간 연회에 참여한 여러 관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총리대신 좌의정 채제공, 감동당상 수원부유수 조신태, 도청통제사 이유경, 책옹도청 수원부판관 홍원섭, 잠물도청 수원부중군 김후, 감동 전라우수사 김치한 이하 15원
 - 별간역 경부감관, 패장, 막부 소속 관료 합 167원
 - 경기도 내 수령: 양주목사 신현조, 부평부사 정상우, 남양부사 전의현, 죽산부사 최운우, 통진부사 이문협, 광주관관 김이호, 안성군수 조운식, 용인현령 정우태, 과천현감 김이유, 시흥현령 김사희, 양성현감 오경원, 지평현감 윤희후, 영평현감 이낙수, 포천현감 서이수, 적성현감 안홍적, 음죽현감 신전, 양지현감 박종해, 경기중군 김백빈, 영화도 찰방 이오진
 - 수원부 내 조정 관원: 이조참의 채홍원, 전 수사 조명즙, 전 부사 조운빈, 전 첨지 조광준, 전 부사 조상준, 전 부사 임희후, 전 정언 윤지범, 전 정언 이서조, 전 전직 류성의, 전 감찰 최지성, 전 주서 임후상 이상 30원
 - 경외 전직 사서인 합 58원
 - 장교, 경부원역 합 200여인
- 13) 「덩니의궤」 권48 제44장. “이제 계병(契屏) 분오(分兒)하니 성역(城役) 못춘 후 화성(華城) 전국의 산천 성곽과 궁실 누덕(樓臺)을 일일이 초본(抄本)에 모사(模寫)하니 춘하추(春夏秋) 세 때 경(景)으로 대병(大屏) 세 좌(坐)의 각각 그려 을남(乙覽)의 진어(進御)하니 그 남은 지료(材料)로 각 도감(都監) 분오(分兒)하니 전례(前例)를 써 총리대신(總理大臣)과 감동 당랑(監董堂郎)이 다 한 좌씩 논호며 감동 제원(監董諸員)도 또한 지본(紙本)에 그려 족자(簇子) 하니 식 분급(分給)하니 어든채 각각 집의 전호는 보비를 삼고 경도(京都) 지상(宰相)의 구경못한 채 그 그림을 빌려 서로 한 번 보기를 쾌히 너기더라.”

활을 쏘도록 하여 잘한 이에게 은전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 이날 서장대에서 야간 훈련을 생략하고 횡블드는 별호령을 행하게 하였다. 마지막에는 성역에 들었던 물력구획, 실제 소요된 비용, 工匠實數, 朔下式例, 雇價式例, 折價式例를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3. 한문본 「화성성역의궤」와의 비교

이 장에서는 「화성성역의궤」의 한문본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한문본과 일치하는 내용에 대한 유형화 및 재구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한문본에 없이 ‘화성성역’에만 나타나는 내용도 살펴보고자 한다. ‘화성성역’이 완질이 아니어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문본과 일치하는 내용을 한문본의 목차에 따라 구성하는 것은 한문본 「화성성역의궤」의 한글본 구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는 한문본을 기준으로 삼고 ‘화성성역’ 내용을 그 체제에 맞게 재배열해 봄으로써 가능해진다. 한문본에 없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 또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3.1 한문본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나는 내용

3.1.1 卷首

<표 2>는 ‘화성성역’의 내용 가운데 한문본의궤의 권수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하여 이를 다시 한문본 의궤의 목차에 따라 재배열하여 본 것이다. 한문본 의궤의 권수는 凡例, 總目, 卷首目錄, 時目, 座目이 각 1건과 圖說(69건)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의궤의 도설은 모두 한문본의궤의 도설에 해당한다. 凡例~座目は 남아 있지 않다.¹⁴⁾ 한문본의궤의 도설에는 총 69건의 圖와 38건의 설명이 수록되어

14) 한글의궤가 한문본의궤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고 또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일기체

있는 데¹⁵⁾ 반하여 ‘화성성역’에는 圖가 없고 29건의 圖說만 남아 있다. 1794년 1월 7일 華城全圖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1796년 9월 9일 華城全圖에 대한 설명에 이르는 총 29건의 기록이 그것이다. 또 이들은 ‘화성성역’의 권40에 3건, 권46에 8건, 권47에 16건, 권48에 3건으로 현전하는 총 4책에 모두 흩어져 있다. 한문본의 궤와는 달리 ‘화성성역’에서 도설이 산재된 이유는 한문본은 도설을 도와 함께 권수에 일괄 정리한 반면 한글의궤는 성역 건축물의 완성순서에 따라 도설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의 성역 건축물에 대한 설명일지라도 한글의궤는 서로 다른 곳에 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한글의궤가 가지는 서술방식으로 인한 것이다. 즉 한글의궤는 29건의 도설 기록이 있지만 이는 실제 한문본에 있는 68건의 도설 가운데 19건의 도설에 해당한다. 위 표 한문본의궤 도설의 1건이 한글의궤에서는 2~4건으로 각기 다른 곳에 산재한 경우가 있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한문본 권수의 도설 가운데 華城全圖의 도설은 ‘화성성역’ 권40 31장과 38장, 권48의 16장 17장에 분리되어 총 4건으로 기술되었다. 이외에 창룡문, 화서문, 남수문, 西南角樓, 東北舖樓가 각각 2건으로, 砲樓圖가 3건으로 분리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화성성역’은 19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총 29건의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나머지 39건의 설명은 현전하지 않는 다른 한글자료에 산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의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나머지 의궤의 특정부분에 일괄로 첨부되었을 것이다.¹⁶⁾

형식이기 때문에 한문본의궤의 체계를 설명한 凡例는 물론 總目, 卷首目錄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사의 개요를 날짜별로 정리한 時日이나 행사 참여자를 기록한 座目은 존재했을 개연성은 있으나 전하지 않는다.

- 15) 한문본의궤의 圖(69건)에 비해 설명의 건수가 적은 것은 하나의 건축물에 外圖, 內圖, 裏圖가 있는 경우 한 항목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이 없는 8개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 16) 모리스 꾸랑의 서지 기술에 따라 지금 현전하지 않는 권39가 ‘화성성역’의 圖를 수록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옥영정, “한글본 『경년의궤』의 서지적분석,” 『書誌學研究』 제39집(2008. 6)).

<표 2> 한문본 권수와 내용이 일치하는 ‘화성성역’의 건수

권차	한문본목차	한글본건수	한문본건수	비고
卷首	凡例	0	1	
	總目	0	1	
	卷首目錄	0	1	
	時日	0	1	
	座目	0	1	
	圖說	29건(19개)	68	

3.1.2 卷一

한문본의권의 권1은 目錄, 御製城華籌略(1건), 傳教(32건), 綸音(1건), 有旨(6건), 傳令(18건), 筵說(18건), 啓辭(59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화성성역’에는 목록과 유지가 없고, 御製城華籌略(1), 傳教(16건), 有旨(4건), 傳令(12건), 筵說(10), 啓辭(23)이 전해진다. 각 항목이 한글의권의 각 권에 산재되어 있는데, <표 3>은 그 분포를 한문본과 대조해 본 것이다. 한문본에서 ‘어제성화주략’은 ‘어제’ 항목에서 분리하여 의권의 처음에 두었다. 범례에 따르면,

“성화주략(城華籌略)은 마땅히 어제(御製) 중에 포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책에서 바깥으로 내어서 제1권의 머리에 실었다. 대체로 이 성역을 계획하는 초기에서부터 임금이 드러나지 않게 몸소 계획을 하셔서 먼저 8개 항목을 특별히 감동(監董)하는 신하에게 내리었다. 분수(分數)와 제도에서부터 자재를 마련하는 것, 수레를 만드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하나 지시를 받음으로서 이로움이 있었다. 이 편(篇)이 책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 권의 맨 앞머리에 두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즉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맨 머리에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글본에서는,

“니하성화주략(內下城華籌略)[안호로서 느리오신 화성의 성 팔 방략(方略)]은 일즉 감동소(監董所)로 느리오신 글이라 이피 회동(會同)호고 성지(城址)를 간심(看審)호 후 이 글을 밧드러 삼가 준행(遵行)호오매 므릇 여덟 가지

조목(條目)이니 하나흔 글은 분취(分數)니 그 예음은 대강 삼천륙십^보 (步)[곡성(曲城)씨디 아올나 헤라의 가히 뼈 용납(容納)홀 만흔게 호고.”

와 같이 별도의 표제어조차 제시하지 않고 곧바로 서술형식으로 권의 가운데에 단순히 날짜의 순서에 따라 권40 제21장에 수록하고 있다. 이는 한문본에서 보여주는 문서 선별과 분류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은 일기체 형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교’는 16건으로 권40에 4건, 권46에 2건, 권47에 3건, 권48에 6건이 산재되어 있다. 유지는 4건으로 권40에 1건, 권48에 3건이 산재되었고, 전령 12건은 권46에 2건, 권47에 8건, 권48에 2건이 산재되었고, 연설 10건은 권40에 7건, 권48에 2건이 수록되었다. 또 계사는 총 23건으로 권40에 12건, 권46에 4건, 권47에 4건, 권48에 3건이 수록되었다. 이와 같이 한글의 경우는 날짜순으로 기록한 서술방식상의 특성 때문에 내용별로 정리한 한문본의 권의 관련 내용에 대응시킬 경우 기록이 여러 곳에 분산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문본 권1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성성역’의 건수는 <표 3>과 같다.

<표 3> 한문본 권1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성성역’의 건수

권차	한문본목차	한글본건수	한문본건수
卷1	目錄	0	1
	御製城華籌略	1	1
	傳教	16	32
	綸音	0	1
	有旨	4	6
	傳令	12	18
	筵說	10	18
	啓辭	23	59

3.1.3 卷二

한문본 제2권은 총 10개의 항목에 78건의 각종 문서 또는 기록물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한글본에 수록된 것은 어제, 어사, 교찬비문을 제외한 7개 항목의

27건이다. 이는 단순히 건수를 비교한 것으로 각 건의 내용이 한글본과 한문본에 동일한 내용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¹⁷⁾ 따라서 양적인 비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여기서도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각 종류별 문서가 한글본의 각 권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먼저 반사는 권47에 3건, 호궤는 권46에 2건, 권47에 6건, 권48에 1건이 산재한다. 상전은 권48에 1건, 의주는 권47에 1건, 절목은 권46에 1건, 고유문은 권40에 5건, 권46·47·48에 각 1건, 상량문은 권46에 2건, 권47에 3건이 수록되어 있다.

<표 4> 한문본 권2와 내용이 일치하는 ‘화성성역’의 건수

권차	한문본목차	한글본건수	한문본건수
卷2	御製	0	7
	御射	0	3
	頒賜	2	13
	稿饋	9	11
	賞典	1	8
	儀註	1	8
	節目	1	3
	告由文	8	14
	上樑文	5	11
教撰碑文	0	1	

3.1.4 卷三

한문본 권3은 目錄, 狀啓, 別單, 移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한글본은 장계, 별단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는데, 장계 11건은 권40에 4건, 권46에 1건, 권47에 2건, 권48에 4건이 수록되어 있다. 별단 4건은 권46에 2건, 권47에 1건, 권48에 1건이 수록되어 있다. 한문본의 移文은 1793년 12월 11일부터 1796년 9월 4일까지의 도청에서 각도의 감영이나 진영, 중앙 아문에 보낸 것이 주류를 이루는데 한글의궤에서는 1건도 수록되지 않았다. 한글본이 날짜별로 정리된 점을 감안하

17) 이에 대해서는 서술방식에서 ‘화성성역’의 서술상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였다.

면 이들이 현전하지 않는 다른 본에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한문본 권3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성성역'의 건수

권차	목차	한글본	한문본
卷3	目錄	0	1
	狀啓	11	55
	別單	4	13
	移文	0	72

3.1.5 卷四

한문본 제3권 내용 가운데 '화성성역'에 일치하는 건수는 매우 소략하여 來關 2건, 事目 2건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來關'의 '關'은 문서의 명칭으로 동등이하의 관에 보내는 문서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來關의 關은 이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 대한 일종의 범칭으로, 구체적으로는 牒를 말한다. 위 두 건의 래관 또한 모두 1794년 1월 6일자로 예조에서 도감당상에게 올린 첩정이다.

첩정은 조선시대에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보내는 가장 일반적인 문서 중에 하나였다. 도감으로 발송되는 문서가 주로 첩정인 이유는 도감의 수장인 도감당상이 정1품이며, 도감이 정1품아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감 이외의 대부분의 아문은 도감으로 보내는 문서에 첩정을 사용하였다.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본 의궤에서 첩정이라는 문서군을 '來關'이라 명명한 것은 關이라는 문서가, 조선시대에 '帖'이 그러하듯이 문서의 범칭으로 종종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래관'의 용도가 이와 같이 쓰인 경우는 이외에도 여러 의궤에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행사의 내용에 따라 일정하지 않지만, 예조가 행사에 깊이 관여하여 도감에 보내는 첩정이 많은 경우에는 '禮關(秩)' 또는 '禮曹牒呈'이란 항목으로 예조의 첩정만을 별도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첩정은 '來關'이라고 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18) 張乙演, 『朝鮮時代 王世子 冊封文書 研究-竹冊의 作成節次를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韓國學中央研究院大學院, 2008).

<표 6> 한문본 권4와 내용이 일치하는 '화성성역'의 건수

권차	목차	한글본	한문본
卷4	來關	2	72
	甘結	0	40
	稟目	0	30
	事目	2	5
	工匠	0	22

3.1.6 卷五, 卷六

권5와 권6을 구성하는 財用篇의 상편과 하편은 모두 네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는데 區劃, 措備, 實入, 遺在가 그것이다. '화성성역'에는 권5에의 區劃과 實入에 해당하는 문서가 각각 1건이 있고, 권6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 이 두 권은 화성성역에 사용된 각종 물력을 종목별로 기록한 부분으로 일종의 회계장부와 유사한 성격이다. 따라서 그 구성이나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매우 단조롭다. 이에 해당하는 '화성성역'의 기록을 보면 내용의 생략이 많다. 또 한문본과 비교해 보면 전사 형태가 다소 자유로운 부분이다. 이는 추측컨대 이 의궤의 대상 독자가

<표 7> 한문본 권5,6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성성역'의 건수

권차	목차	한글본	한문본	
卷5	目錄	0	1	
	財用上	- 區劃	1	1
		- 措備	0	14
		- 實入	1	34
卷6	目錄	0	1	
	財用下	- 實入一	0	24
		- 實入二	0	10
		- 雜物	0	12
		- 實入三	0	9
		- 各樣雜下	0	1
		- 實入四	0	6
		- 遺在	0	9

왕실 여성이라는 점이 다른 부분보다 더 강하게 편집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나치게 소소하게 기재하는 것이 굳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권1~권6까지가 한문본 「화성성역의궤」의 범례에서 말하는 ‘原編’이다.

3.1.7 附編1, 附編2, 附編3

한문본의 부편은, 범례에 따르면 ‘附編을 아래에 붙인 것과 같은 것은 정리의궤의 체계와 같게’ 한 것이다. 그러나 부편3에 대해서는 “宮이나 廡나 檀이나 廟와 같은 것은 따로 한 체계를 갖추어서 原編의 항목 배열과는 아주 달리 하였는데 이것 역시 부득이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화성성역’에는 부편1에의 行宮과 亭渠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 1건으로 총 2건이 수록되어 있다. 부편2에는 전교, 어사 각 2건과 상량문, 장계, 별단이 각 1건 씩 수록되었다. 마지막 권인 부편3에는 ‘화성성역’에 해당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표 8> 한문본 부편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성성역’의 건수

권차	목차	한글본	한문본
附編1	目錄	0	1
	行宮	1	17
	亭渠	1	3
附編2	目錄	0	1
	傳教	2	10
	筵說	2	7
	啓辭	0	10
	御製	2	47
	御射	0	5
	節目	0	2
	告由文	0	3
	上樑文	1	11
	狀啓	1	4
	別單	1	1

	移文		0	7
	來關		0	4
	甘結		0	3
	目錄		0	1
附編3	財用	- 行宮實入	0	8
		- 公廳實入	0	6
		- 壇廟實入	0	2
		- 亭渠實入	0	2

이상과 같은 한문본의 내용과 일치하는 ‘화성성역’의 내용은 부록으로 정리하여 별첨하였다. 수록방식의 비교, 편집방식과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2 한문본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나지 않는 기록과 그 내용

‘화성성역’의 내용 중에는 한문본에 나타나지 않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한문본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일성록」이나 「승정원일기」, 「실록」 등의 기록에 그 내용이 남아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기록에 없이 한글본 ‘화성성역’에만 남아있는 것이다.

우선 「일성록」이나 「승정원일기」, 「실록」 등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전교나, 연설, 계사 등의 내용으로 특정인물에 대한 추천이나, 징계, 임명 등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인사에 관련된 것이 많다. 대부분이 「일성록」의 기사에 기록된 것이지만 총리대신 채제공에게 수원유수 조신태에 대한 신뢰를 언급한 것이나, 승정원에서 호궤할 승지를 정하는 명을 담은 내용은 「승정원일기」의 기록에만 전해진다. <표 9>는 한문본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되지 않은 ‘화성성역’의 기록 중 「일성록」, 「승정원일기」, 「실록」 등에 나타나는 기록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華城城役儀軌」의 한글자료에 관한 연구

<표 9> 「華城城役儀軌」에 수록되지 않은 '화성성역'의 기록 중 일성록, 승정원일기, 실록 등에 나타나는 기록

번호	날 짜	분류	내 용	권수	면수	수록문헌
1	1793년1월12일	傳敎	수원부의 호청을 화성으로 바꾸고 수원부사를 유수로 승격시키는 등 체제를 정비.	40	1b	일 승 실
2	1793년1월12일	傳敎	체제공을 수원부유수로 임명.	40	3b	일 승
3	1793년11월27일	筵說	조심태에게 성역방책을 물음.	40	6a	일 승
4	1793년12월8일	啓辭	좌승지 서영보가 '훈련대장 조심태가 감동당상관을 겸하게 된 일로 훈련대장의 임무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관하여 여쭙고 명을 받음.	40	15a	일 승
5	1794년1월7일	傳敎	경상좌병사 윤범행이 진주성첨도형을 허술하게 그려 올린 일로 그를 징계함.	40	33a	일 승
6	1794년2월26일	傳敎	화성유수의 후임자를 추천하게 함.	40	46a	일 승
7	1794년2월26일	설명	비변사에서 수원부유수 조심태를 추천하자 상께서 낙점.	40	46a	일 승
8	1794년4월2일	狀啓	경기감사 서용보가 남양부사 이익진으로부터 '충청도 서산군의 방선이 난파되었으나 재목과 인명을 모두 구했다는 첩장을 받았음을 보고하고,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전을 베풀기를 청함.	40	60b	일 승
9	1794년4월2일	傳敎	공을 세운 윤성손의 帖加를 성급하도록 명함.	40	62a	일 승
10	1794년4월6일	狀啓	수원유수 조심태가 마량의 배가 난파될 때 인명을 구한 강귀재에게 상전을 베풀 일과 바다에서 건진 재목의 수를 보고하다. 상께서 강귀재에게 상전을 내리도록 명함.	40	65a	일 승
11	1796년1월23일	筵說	총리대신 체제공에게 조심태에 대한 신뢰도를 말함.	46	60a	승
12	1796년1월24일	筵說	행궁을 떠날 적에 착잡한 마음을 말함.	46	63b	일 승
13	1796년2월7일	傳敎	성역에 백성을 부리는 일에 대하여 전교.	46	65b	일 승 비
14	1796년4월12일	有旨	병조에서 금군별장에 다른 사람을 임명하도록 명함.	46	75a	일 승
15	1796년5월12일	狀啓	수원유수 조심태가 지난해에 '성역도정 이유경이 금군별장을 겸임하게 된 일'로 장계를 올렸으나 시정되지 않아 다시 아뢰. 시정됨.	47	4b	일 승
16	1796년6월14일	傳敎	담군을 불러모을 때 향도군수번이 죽은 일로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대해 경계함.	47	15a	일 승
17	1796년7월12일	傳敎	완공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직분을 다하도록 명함.	47	24a	일 승 비
18	1796년8월17일	啓辭	승정원에서 호케할 승지를 여쭙니 좌승지가 가계하라 명함.	47	46b	승
19	1796년9월12일	有旨	성역상전으로 업무속과 박종수를 등용하였으나 업무속이 대명하지 않은 것을 괘씸히 여겨 처벌하게 함.	48	28a	일 승
20	1796년9월12일	狀啓	수원유수 조심태가 업무속과 박종수의 일에 관하여 해명함	48	29a	일 승
21	1796년9월15일	有旨	조심태의 장계를 본 뒤 그들의 일을 이해하고서, 이전대로 시행하게 함.	48	30a	일
22	1796년9월15일	傳敎	수원관관을 그대로 두라 명함.	48	30b	일 승
23	1796년11월9일	碑文	華城紀蹟碑.	48	54a	일
24	1797년1월29일	下敎	서북공심돈 앞을 지날 때 '공심돈의 제약을 신하중에 보고자 하는자는 보게 하라' 명함.	48	60b	일 승
25	1797년1월29일	啓辭	호조판서 이시수가 '화성유수 조심태에게 사급할 전민내역'에 관해 아뢰어 명을 받음.	48	64a	일

한편 한글본 ‘화성성역’에만 남아있는 기록은 36건 정도이다. 그 내용은 주로 설명, 하교, 연설, 전령, 반사 등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설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이 있다는 것과 기술 언어가 한글이라는 점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성역 건축 과정의 대략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세세한 항목은 생략하거나 요약하며, 또 각종 기록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부연하여 설명한 것이 고유한 내용으로 남은 것으로 보인다.

‘화성성역’에만 남아있는 기록의 내용중 恩重偈 眞言 125장과 부채 85개를 감동 당상관 이하 경부패장까지 등급을 구분하여 나누어 준 기록은 은중계 진언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설을 담고 있다. ‘화성성역’에서는 “불경 가운데 ‘恩重經’이라 하는 글이 있어 부모의 은혜가 중함을 중생들이 알도록 한 말씀이다. 그 경문은 따로 있고, 이것은 진언 글귀니 불가에서 ‘偈語’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홍도의 그림으로 화성 16경을 춘추 8경으로 나누어 그린 병풍에 대한 설명이 있어 주목된다. 봄 8경은 ‘花山瑞靄’, ‘柳川晴煙’, ‘午橋尋花’, ‘吉野觀桑’, ‘新豊社酒’, ‘大有農歌’, ‘華郵散驅’, ‘荷汀汎鷁’이요, 가을 8경은 ‘虹渚素練’, ‘石渠黃雲’, ‘龍淵霽月’, ‘龜巖返照’, ‘西城羽獵’, ‘東臺畫鵠’, ‘閒亭品菊’, ‘陽樓相雪’이다. 이 중에 화서문밖의 가을사냥(西城羽獵)과 미로한정의 국화완상(閒亭品菊)의 실물로 추정되는 작품이 서울대박물관 소장품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성성역’에는 16경 모두에 해설을 하였다. 한정품국의¹⁹⁾ 경우처럼 화성행궁 뒤의 정자와 주변에 대한 풍경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그 정취를 글로서 표현하였으므로 그림

19) 「당년의궤」 권48 제44장. 미로한정(未老閒亭)에 국화(菊花)를 제품(題品)히미라 이 정지(亭子) |) 행궁(行宮) 뒤히 이서 육면(六面) 치각(彩閣)이 송취(松翠)로 2리오니 은연(隱然)이 유벽(幽僻)히 디경(地境)이오 초연(超然)이 쇼쇄(灑灑)히 경개(景概)라 그 좌우(左右)에 만년지단풍(萬年之丹楓)을 빼로 심으고 압히 오식(五色) 국화(國花)를 갖가이 장덤(粧點)히니 정자의 오르매 스시조모(四時朝暮)에 각각 괴이(奇異)히 경(景)이로디 느즌 2월에 풍국(楓菊)이 교영(嬌影)히미 거의 이 정자(亭子)의 취미(趣味)를 당홀디라 쫓출 처스(處士)에 비(比)히고 향(香)이 노포(老圃)[늙은 나물밭]에 맞당히니 엇지 금원(禁苑)에 제품(題品)히믈 참예(參預)히리오마는 그 몹은 즈질과 조흔 향취(香臭) 또한 요디(瑤臺) 옥례(玉體)에 갖가이 히엇죽히미러라.

「華城城役儀軌」의 한글자료에 관한 연구

과 함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다.

그 밖에도 성역에 쓰이는 돌을 뜨는 곳인 '숙지산'에 대한 서술이나, 성신사의 고유제, 낙성연과 관련된 의식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눈여겨 볼만 하다.

'화성성역'에만 남아있는 기록을 요약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한글본 '화성성역'에만 남아있는 기록

번호	날 짜	분류	내 용	권수	면수
1	..	설명	수원성역의 배경에 대한 설명	40	1b
2	1793년1월12일	筵說	수원유수에게 성역에 소용되는 돌이 있는 곳을 찾게 하는 등 성역시행의 방책을 물음.	40	4b
3	1793년5월	설명	체제공은 영의정으로 들어오고, 이명식이 수원부유수가 됨.	40	5a
4	1793년12월9일	설명	훈원대장 조심태와 도청이유경이 화성성터를 살펴러 나감.	40	16a
5	1794년1월7일	설명	성역에 쓰이는 돌을 뜨는 곳인 '숙지산'에 대하여 서술함.	40	29b
6	1794년4월1일	狀啓	수원유수조심태가 수원부판관 정동협으로부터 '성역에 쓸 재목을 실은 배가 난파된 사실을 전하는 첩정'을 받고서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빠진 재목을 건지도록 명하였음을 보고.	40	58b
7	1795년10월3일	설명	迎華亭완성. 영화정의 제도설명.	46	10a
8	1796년2월9일	御製詩	영화정에 걸 어제시 현판을 내림.	46	12a
9	1796년1월8일	傳令	장용의사 조심태에게 원행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명함.	46	48b
10	1796년1월20일	筵說	수원판관 홍원섭에게서 수원부의 실정을 들으시고, 판장이 수원부백성들에게 농사일을 더욱 권면하게 함.	46	54b
11	1796년1월22일	설명	동장대에서 열무를 친행함.	46	57b
12	1796년1월23일	설명	조광조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상의 은전을 서술.	46	61b
13	1796년1월24일	傳教	오언을시를 지으신 후 신하들에게 시를 갱진하라 명함.	46	65a
14	1796년1월24일	설명	지지대에 대한 설명.	46	65a
15	1796년4월16일	설명	華陽樓(西南角樓)開基.	47	1a
16	1796년4월22일	傳令	도청 이유경에게 '지난번에 하사한 것같이 넉넉지 않아 다시 내리니 나누어주고, 별단으로 보고하라' 명함.	47	1b
17	1796년5월6일	頒賜	은중계진인과 부채를 하사함. 은중경에 대해 설명한 뒤 음식을 하사 받은 백성들의 반응을 서술.	47	2a
18	1796년6월9일	下教	장용영의 발장을 발마달려 울려 보낸일에 관하여 하교.	47	14b
19	1796년6월17일	설명	烽墩(봉화켜는돈대) 완성.	47	16a
20	1796년6월17일	설명	봉화대에 대한 설명.	47	17a
21	1796년7월11일	설명	城神祠開基.	47	22a
22	1796년7월13일	私通	완공을 앞두고 장인과 모군 등에게 지급할 쌀을 원행시에 나누어줄 수 있도록 대령하게 함.	47	24a
23	1796년7월27일	下教	성역이 거의 마쳤으니 장인과 모군 등에게 점심을 먹일 수 있도록 외탕고에서 대령하게 하라 명함.	47	41a

24	1796년8월12일	下教	호쾌하되 쇠고기는 돼지고기로 대용하라 명함.	47	44b
25	1796년8월19일	설명	승지김조순이 의주대로 호쾌를 설행함.	47	50b
26	1796년9월9일	설명	성안팍의 전체 모습설명.	48	21a
27	1796년9월10일	설명	감동당상 조신태와 도청 이유헌이 성역을 마친 뒤 조정에 들어옴.	48	23b
28	1796년9월19일	설명	성신사 고유제에 대한 설명. 제사의주	48	33a
29	1796년10월8일	傳令	외사 조신태에게 '성역패장 이하의 상격을 보내니 잘받으라.' 명함.	48	38a
30	1796년10월16일	설명	낙남헌에서 落成宴을 설행함.	48	38b
31	1796년10월16일	명단	낙성연에 참여한 관원명단	48	43a
32	1796년10월16일	契屏	화성전경을 그린 契屏을 나누어줌.	48	44a
33	1796년10월16일	契屏	김홍도가 화성16경을 춘추8경으로 나누어 그린 병풍2좌에 대한 설명.	48	44b
34	1797년1월29일	설명	햇볼드는 별호령을 행함.	48	62b
35	1797년1월29일	下教	만석거앞에 이르시어 못을 관 뒤에 농사에 유익함을 알것이라 말함.	48	64b
36	...	式例	折價式例	48	76b

5. 결 언

이 연구는 한글본 『경의의궤』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을 토대로 그 내용의 일부인 ‘화성성역’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과 함께 한문본 『화성성역의궤』와의 비교 검토를 수행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한글의궤의 일부인 ‘화성성역’은 한문 원문에 대한 한글의 번역양상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한자로 표기된 물품명, 지명, 각종 용어 등이 한글로 어떻게 쓰였는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권의 한글 의궤에 수록된 原文書의 종류와 양을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떤 원자료를 통하여 한글의궤가 작성되었는가를 일부나마 확인할 수도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서지학, 국어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수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한 고문서학, 역사학, 한문학, 기록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에 대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서 기존의 『화성성역의궤』에 대한 한글언해와 함께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화성성역의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화성성역’의 구성체제와 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한문본 『화성성역의궤』와의 비교를 통하여 일종의 한글본 『화성성역의궤』를 구성해보

는 시도를 하였다. 「화성성역의궤」의 한문본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한문본과 일치하는 내용에 대한 유형화 및 재구성을 시도하였으며 한문본에 없이 ‘화성성역’에만 나타나는 내용도 살펴보았다. ‘화성성역’이 완질이 아니어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문본과 일치하는 내용을 한문본의 목차에 따라 배열해 보는 것은 한문본 「화성성역의궤」의 한글본 구성이라는 의미가 있다.

한글본 「녕니의궤」에 대한 편찬목적이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한글의궤로서 또 하나 남아있는 「慈慶殿進爵整禮儀軌」의 한글본은 세자의 명으로 中宮과 卍子嬪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에 따라 한글본 「녕니의궤」 역시 중궁을 비롯한 왕실 여성 즉 內命婦의 열람용으로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글의궤의 편찬목적에 부합하여 찬술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많이 나타나는 데, 구체적이고 딱딱한 내용을 생략 또는 축약하고 한글의궤의 흐름에 맞게 써나간 흔적이 보인다. 한문본과 언해본의 관련성 및 각각의 편찬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한글의궤의 서술방식과 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날짜별로 기록된 이 자료는 관찬사료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많은 부분의 내용을 「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사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문들을 볼 수 있으며 역사서 뿐만 아니라 등록, 의궤 등 관찬 기록물의 편찬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일성록」과 「승정원일기」는 실록에 비하여 그 내용이 상세한 것이 특징인데 많은 부분이 일치하였다. 편찬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어서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편찬 당시에 이와 같은 관찬 사료는 한글자료의 저본이라기 보다는 또 다른 원본을 보고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그 일을 주관했던 관청에 보관되어 있던 성책된 문서나 등록 형태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듯하나, 확실한 근거 자료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오히려 다른 기록에 보이지 않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화성성역’에만 보이고 다른 곳에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들 기록은 화성 건설의 전말을 가장 상세하게 담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관련

등록이 이미 없는 상황에서 기존 사료의 공백을 메우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처음에 한글본 「덩니의궤」의 서지적 분석을 다룬 필자의 연구에서 한문본 의궤나 등록 형태의 번역대본을 바탕으로 편찬되었음을 언급하였고 내용의 원문을 찾아 볼 수 있는 관찬사료로 일정부분 복원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 글에서 화성성역의궤의 한문본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한문본과 일치하는 내용에 대한 유형화 및 재구성을 시도해 봄으로써 처음에 가졌던 기대를 조금이나마 충족시킬 수 있었다.

<참고문헌>

<原典>

-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日省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본. <http://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JWS>.
「承政院日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본. <http://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JWS>.
「園幸乙卯整理儀軌」.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整理儀軌」. (프랑스 파리 동양어학교 도서관 소장본 COR.1-21).
「華城城役儀軌」.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著書 및 論文>

- 김도경, 주남철. “화성성역의궤를 통한 공포부재의 용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0권 1호(1994).
김동욱. “<화성성역의궤>의 건축사적 의의.” 「진단학보」 제93호(2002).
김문식, 신병주. 조선 왕실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 김연주. “<영조의궤>의 용기명 표기 해독.” 『민족문화논총 제25집(200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연주. “영건의궤류의 차자 표기 연구-표기법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45집(2004).
- 김준혁.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 서울: 여유당. 2008.
- 모리스 꾸랑 原著 · 이희재 翻譯. 韓國書誌. 一潮閣. 1997.
- 문장현. 정보 디자인의 관점으로 본 조선시대 의궤연구: <원행음묘정리의궤>와 <화성성역의궤>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병선. 朝鮮朝의 儀軌-과리所藏本과 國內所藏本の 書誌學的 比較 檢討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 박정혜. “<화성성역의궤>의 회화사적 고찰.” 『진단학보』 제93호(2002).
- 신명호. “조선후기 국왕 행행시 국정운영체제-<원행음묘정리의궤>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제17집 1호(2001).
- 신명호.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서울: 돌베개. 2002.
- 오창명. “의궤에 나타나는 차자표기 연구(1)-조선후기 복식어휘를 중심으로.” 한국복식, 제15호(1997). 단국대학교 민속박물관.
- 유완상, 박천우. “<화성성역의궤>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소 논문집 제2권 1호 (1993).
- 이달호.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건설. 서울: 혜안. 2008.
- 장을연. 朝鮮時代 王世子 冊封文書 研究-竹冊의 作成節次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대학원. 2008. 2.
- 정경희. “조선후기 園所都監儀軌의 특징.”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 천혜봉, 이정섭, 박상국. “부록2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프랑스 기메박물관 및 동양어학교 도서관 소장본.” 『文化財 제36호(2003).
- 최홍규. “<화성성역의궤>의 구성과 역사적 의의.” 진단학보』 제93호(2002).
- 최홍규. 정조의 화성 경영 연구 . 서울: 일지사. 2005.

한영우. “조선시대 의궤 편찬 시말.” 『한국학보』. 서울: 일지사. 2002.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서울: 효형출판. 1998.

황금연. 儀軌類의 漢字 借名 表記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부록> 「화성성역의궤」의 체제에 따른 ‘화성성역’ 내용의 재구성

번호	‘화성성역’ 수록 년도	구분	내용	‘화성성역’		華城城役儀軌 해당 항목	華城城役儀軌 목차	권수 (‘화성성역’/ 華城城役儀軌)
				권수	장수			
							卷首	0
							凡例	0
							總目	0
							卷首目錄	0
							凡例	0
							總目	0
							卷首目錄	0
							時目	0
							座目	0
19	1794.1.7.	설명	‘숙거산과 함께 성역에 쓰이는 돌을 뜨는 곳인 ‘여기산’, ‘관동’, ‘팔달산’에 관하여 서술하다.	40	31a	卷首,圖說, 華城全圖	圖說	29(19)/68
25	1794.1.25.	설명	‘숙거산과 함께 성역에 쓰이는 돌을 뜨는 곳인 ‘여기산’, ‘관동’, ‘팔달산’에 관하여 서술하다.	40	38b	卷首,圖說, 華城全圖		
143	1796.9.9.	설명	각 장의 女牆 완성. 여장의 제도 설명.	48	16a	卷首,圖說, 華城全圖		
144	1796.9.9.	설명	화성의 전체 모습(제도) 설명.	48	17b	卷首,圖說, 華城全圖		
47	1795.10.4.	설명	蒼龍門 완성. 광릉문의 제도 설명.	46	12b	卷首,圖說, 蒼龍門		
122	1796.8.14.	설명	東甕城 완성. 동옹성의 제도 설명.	47	45a	卷首,圖說, 蒼龍門		
57	1796.1.8.	설명	華西門 완성. 화서문의 제도 설명.	46	54a	卷首,圖說, 華西門		
123	1796.8.14. 이후	설명	西甕城 완성. 서옹성의 제도 설명.	47	45b	卷首,圖說, 華西門		
72	1796.3.25.	설명	東暗門 완성. 동암문에 대한 설명.	46	69b	卷首,圖說, 東暗門		
74	1796.3.27.	설명	北暗門 완성. 북암문에 대한 설명.	46	71b	卷首,圖說, 北暗門		
94	1796.6.18.	설명	西暗門 완성. 서암문의 제도 설명.	47	18b	卷首,圖說, 西暗門		
117	1796.8.11.	설명	西南暗門 완성. 서남문의 제도 설명.	47	44a	卷首,圖說, 西南暗門		
34	1794.3.1.	설명	북쪽에 서남쪽으로 水門을 만든 것에 관해 서술하다.	40	49b	卷首,圖說, 南水門內圖		
71	1796.3.25.	설명	南水門 완성. 남수문에 대한 설명.	46	67b	卷首,圖說, 南水門		
77	1796.4.14.	설명	東北甕臺 완성. 동북노대의 제도 설명.	46	75a	卷首,圖說, 東北甕臺		
70	1796.3.10.	설명	西北空,心墩 완성. 서북공심돈의 제도 설명.	46	66b	卷首,圖說, 西北空,心墩		

48	1795.10.5	실명	南空心墩 완성. 남공심돈의 제도 설명.	46	14a	卷首圖說, 南空心墩		
106	1796.7.19.	설명	東北空心墩 완성. 동북공심돈의 제도 설명.	47	24b	卷首圖說, 東北空心墩		
99	1796.7.9.	실명	西北角樓 완성. 서북각루의 제도 설명.	47	21a	卷首圖說, 西北角樓		
107	1796.7.20.	실명	華陽樓 완성. 화양루의 제도 설명.	47	26b	卷首圖說, 西南角樓		
142	1796.9.7.	실명	西南暗門 밖의 甬道 완성. 용도의 제도 설명.	48	14b	卷首圖說, 西南角樓		
109	1796.7.25.	실명	東南角樓 완성. 동남각루의 제도 설명.	47	40b	卷首圖說, 東南角樓		
88	1796.5.30.	실명	西砲臺 완성. 서포루의 제도 설명.	47	13b	卷首圖說, 砲臺圖		
98	1796.7.9.	실명	南砲臺 완성. 남포루에 대한 설명.	47	21a	卷首圖說, 砲臺		
105	1796.7.16.	실명	東砲臺 완성. 동포루에 대한 설명.	47	24b	卷首圖說, 砲臺		
85	1796.5.15.	실명	東北舖樓(角中臺) 완성. 동북포루의 제도 설명	47	5a	卷首圖說, 東北舖樓		
131	1796.8.18.	실명	西舖樓 완성. 서포루의 제도 설명.	47	50a	卷首圖說, 東北舖樓		
96	1796.7.3.	실명	東二舖樓 완성. 동이포루에 대한 설명.	47	20a	卷首圖說, 東舖樓		
100	1796.7.10.	실명	東一舖樓 완성. 동일포루에 대한 설명.	47	21b	卷首圖說, 東舖樓		
114	1796.8.6.	실명	中舖舍 완성. 중포사에 대한 설명.	47	42b	卷首圖說, 中舖舍		
						卷一		
						目錄	0	
12	..	總略	內下城華籌略(상께서 내리신 화성에 성을 쌓는 계획)	40	21a	卷1, 御製城華籌略	1/1	
1	1793.12.6.	傳敎	수원성역의 담장관리와 경비에 대해 명하다.	40	1a	卷1, 傳敎		
9	1793.12.10.	傳敎	충청수의 이윤겸이 화성문루의 제목을 폐에 실어 나른 말을 강제로 보고하 자. 상께서 안심하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보고하게 하 다. 상께서 화성문루의 제목을 크게 기뻐하며 그 후손을 상급관 재주로 증직시키다.	40	16a	卷1, 傳敎		
28	1794.2.12.	傳敎	충청수사 이윤겸이 화성문루의 제목을 폐에 실어 나른 말을 강제로 보고하 자. 상께서 안심하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보고하게 하 다.	40	45b	卷1, 傳敎		
39-1	1794.3.11.	傳敎	이서구가 아뢰어 우수영의 폐단에 대하여 경멸할 것을 명하다.	40	56b	卷1, 傳敎		
40-1	1794.3.16.	傳敎	사주로서 명단에 이르러 조수의 운반에 대해 은연을 배풀고, 성역으로 인한 폐해가 있으면 바로 보고하게 하 다.	40	57b	卷1, 傳敎		
63	1796.1.22.	傳敎	동정대에서 시열하신 뒤 시상하시다.	46	59a	卷1, 傳敎		
65	1796.1.23.	傳敎	수원부에 있는 조광조의 사묘에 제제하게 하고, 그의 후손을 등용하게 하시 다.	46	60b	卷1, 傳敎		
97	1796.7.7.	傳敎	완공을 얼마 앞두고 없었으므로, 도장의 소위를 제대로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하시 다.	47	20b	卷1, 傳敎		
125	1796.8.17.	傳敎	성역 완공하는 날 승지를 보내어 호쾌하게 하고, 감동당상관 이하는 공역을 장문하고 문부를 수장하여 보고하라 명하시 다.	47	46a	卷1, 傳敎		

128	1796.8.18.	傳敎	호쾌한 뒤에 장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게 하다.	47	47a	卷1.傳敎		
147	1796.9.10.	傳敎	원공 뒤 감동한 신하들을 시상하게 하시다.	48	23b	卷1.傳敎		
148	1796.9.10.	傳敎	상전을 정리의에 단상관이 종류별로 나누어 책자로 정리하고, 승정원일기 등에 내용을 배껴게 하라고 명하시다.	48	27b	卷1.傳敎		
149	1796.9.10.	傳敎	선공에게 별도의 상을 주게 하시다.	48	27b	卷1.傳敎		
153	1796.9.17.	傳敎	상신사에 위판을 봉안할 날짜를 정하게 하다.	48	31a	卷1.傳敎		
156-1	1796.9.21.	傳敎	장제대로 시행하라 명하시다.	48	37b	卷1.傳敎		
168-1	1797.1.29.	傳敎	서장대에서 야간훈면을 생략하고, 햇불 드는 별호명을 행하게 하다. 화성유수 조심태에게 진민을 사슴하게 하다. '정 안팎 백성들의 환복에 모조를 제해'주다.	48	63a	卷1.傳敎		
35	1794. 3. 4.	有旨	수원유수조심태가장에게로 화성문주의제목을 홍정수영에서실은배가모두정박하였음을보고하자,상께서안신하시고계속보고하라고하시다.	40	51a	卷1.有旨	繪音	0/1
153-2	1796.9.17.	有旨	그날에제사를살행하게하고,위관조성어부를보고하도록명하시다.	48	32a	卷1.有旨	有旨	4/6
154	1796.9.18.	有旨	성신사고유제의제함을관하여명하시다.	48	32b	卷1.有旨		
158	1796.10.7.	有旨	행행기.이미꾸어졌으니,행행시주려던상을정역패 장등에게내려주도록명하시다.	48	38a	卷1.有旨		
51	1795.10.28.	傳劄	정용외사조심태에게"제중단3친환을내려보내니성역장수들에게내려주도록명하라"명하시다.	46	16a	卷1.傳劄	傳劄	12/18
52	1795.11.10.	傳劄	장용외사조심태에게"죽의에대비하여공강과조역들에게부명등을나누어주라"명하시다.상께서내리신물품내역을부록하다.	46	16b	卷1.傳劄/ 卷2.頌賜/卷3.別單		
95	1796. 6. 24.	傳劄	도청이유경에게 더위로고생하지않도록성역을잠깐씩쉬게하고,보약올역사에참여하는이들에게나누어주라"명하시다.	47	19a	卷1.傳劄		
101-1	1796.2.1.	傳劄	외사조심태에게城神廟를세우도록명하시다.	47	22a	卷1.傳劄		
115	1796.8.7.	傳劄	외사조심태에게"10일에간동어하동에계정심을어기위해장용내영당상장관이내려갈것이니의당고에서머뭇히며대평하라"명하시다.	47	43b	卷1.傳劄		
118	1796.8.12.	傳劄	외사조심태에게호패를명하시다.	47	44a	卷1.傳劄		
119	1796.8.12.	傳劄	외사조심태에게성역이끝난뒤호패를명하시다.	47	44b	卷1.傳劄		
121	1796.8.13.	傳劄	외사조심태가월단으로호패날짜를22일로정할것을이퇴자윤하하시고,호패절차에대해말씀하시다.	47	45a	卷1.傳劄		
129	1796.8.18.	傳劄	외사조심태에게"장인들에게월과돈을지급하고,그들의정보를기록하여보고하라"명하시다.	47	47b	卷1.傳劄		
130	1796.8.18.	傳劄	외사조심태에게"승지가명을받들어호패를거행하게하라"명하시다.	47	48a	卷1.傳劄		

136	1796.8.25.	傳令	외사조신태에게 영교김장인의외영에이를것이니그가장인과모든등에게시상하고호계한부의받고에서계산하게하라. 명하시다.	48	2b	卷1.傳令		
138	1796.8.29.	傳令	외사조신태에게 완공날짜를반드시맞추라'고명하시다.	48	3b	卷1.傳令		
2-3	1793.1.12.	雜說	전교의뜻을이해시키다.	40	4a	卷1.雜說	雜說	10/18
2-6	1793.1.11.16.	雜說	조신태에게 성역의개혁을응용합법법을틀으신후가아닌데로하게하다.	40	5a	卷1.雜說		
2-8	1793.12.6.	雜說	성역을감독할직임자에대해의논하다.	40	6a	卷1.雜說		
5	1793.12.8.	雜說	외사블레데리고가서성터와수원부전제를그려오게하다.그리고성의제도예관하여차례하게명하시다.	40	12a	卷1.雜說		
10	1793.12.13.	雜說	조신태와이유경이화성성터등을그린도형을올리고보고하자성성태와공역의간행숙도에대해물으시다.	40	17a	卷1.雜說		
21	1794.1.14.	雜說	상계서원통원에건알라신묘화성성터를들러보시다.'花山';'柳川';'華城'의의미를밝힌뒤정의모양에대해말씀하시다.	40	33b	卷1.雜說		
22	1794.1.15.	雜說	1.판단산에오르시어공산형편을살펴보신뒤'장대'를제우게하시다.2.인가를성안에두게하시다.3.성물흔노오양에대해말씀하시다.	40	34b	卷1.雜說		
165	1797.1.29.	雜說	장안문루에임하시어영외역의민가수에대해물으시자.조신태가대답하다.	48	60b	卷1.雜說		
166	1797.1.29.	雜說	방회수루정에서활을쏘시다.규경하는이중10인만활을쏘게하여결한이에게은잔을내리다.	48	61a	卷1.雜說 / 卷2.御射		
167	1797.1.29.	雜說	동정대에이르시어치성의게노에대해말씀하시고.조신태에게'서장대에켓발을대명하게하라'명하시다.	48	61b	卷1.雜說		
3	1793.12.6.	啓辭	전수원부사 조신태가 성역 전반의 일에 관해 아뢰어 이에 대해 재계공 등과 의논하여 정하다.	40	7a	卷1.啓辭	啓辭	23/59
4	1793.12.8.	啓辭	비변사에서도청과별간역을임명하는일에관하여아뢰어유언한다.	40	11b	卷1.啓辭		
6	1793.12.8.	啓辭	감동상관조신태가성역수문을고백성들이부각정물러들지않도록모군을미리분배하게하기를아뢰다.	40	14b	卷1.啓辭		
11	1793.12.18.	啓辭	1.간동담당조신태가성역에사용되는재목을구하는전에관하여아뢰다.2.역사물시각할때행할고유계에관하여아뢰다.3.문루와장대에상량할때필요한상량문에관하여아뢰다.	40	17b	卷1.啓辭		
13	1794.1.4.	啓辭	비변사에서일관이를관화상성역날짜등을보고하자상계서정하시다.	40	27a	卷1.啓辭		
14	1794.1.4.	啓辭	총리대신계공이성역을감독할여러관던들이의명에관하여아뢰고.고유계에스일축문의형식에관하여아뢰다.	40	28a	卷1.啓辭		
23	1794.1.22.	啓辭	감동상조신태가수원부관관을책응도정에임명하도록아뢰어유언한다.	40	36b	卷1.啓辭		
26	1794.2.10.	啓辭	비변사에서'호남의유수사가성역에쓰인재목을성역정어관계없이일경만배분하여바치게한배'를아뢰자.상계서그를발하고다른곳에서같은배단이일어나지않도록경계하게하다.	40	43b	卷1.啓辭		

27	1794.2.10.	啓辭	1.호조판서 심이거가 성역에 소용되는 양식을 조달하는 일에 관하여 아뢰어 운허한다. 2.감동당상조심태가 성역의 식량, 경비, 감독하는 관리 임명 등에 관하여 아뢰어 운허한다.	40	44b	卷1.啓辭		
36	1794.3.5.	啓辭	영의정 홍낙성이 전라감사 이서구의 장계를 보고서 이대로서 시행할 것을 아뢰다.	40	51a	卷1.啓辭		
37	1794.3.8.	啓辭	비변사에서 경감사조진태의 장계에 대해 명신을 사용하게 하고 상담미는 내년 봄까지 지미를 수없다 고 아뢰다. 이에 상께서 영남의 나무를 사용하지 않거나 내년까지 기다려 운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고 아뢰다.	40	52a	卷1.啓辭		
38	1794.3.13.	啓辭	비변사에서 앞서 경감사조진태의 장계 내용으로 인해 수원유수조심태와의 논하나, 영남의 나무는 제외하고 호남에서 실어나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고 아뢰었다. 상께서도 운허하다.	40	54a	卷1.啓辭		
49	1795.10.13.	啓辭	수원유수조심태가 협수조관을 협수장으로 개칭하는 것에 관하여 아뢰어 운허한다.	46	15a	卷1.啓辭		
55	1796.1.3.	啓辭	영의정 홍낙성이 수원유수조심태의 임기가 다 되었으니, 유수 임하도록 아뢰어 운허한다.	46	48b	卷1.啓辭		
58	1796.1.20.	啓辭	행행대병조에서 화성외문을 방어하는 일을 아뢰어 운허한다.	46	54b	卷1.啓辭		
73	1796.3.26.	啓辭	사간오정원이 울해 흉년이 들 듯 하니, 감시정역을 정지시키고 농사에 진남하게 함이 좋을 듯 하다고 아뢰다.	46	70a	卷1.啓辭		
92-1	1796.1.22.	啓辭	수원유수조심태가 부화대심치를 건의하여 운허한다.	47	16a	卷1.啓辭		
112	1796.8.3.	啓辭	우의정 윤시동이 완공을 앞두고 부족한 경비 운용에 관하여 아뢰어 운허한다.	47	41b	卷1.啓辭		
113	1796.8.3.	啓辭	장용영에서 성역 경비 운용에 대해 아뢰어 운허한다.	47	42a	卷1.啓辭		
127	1796.8.18.	啓辭	비변사 낭청이 간동당상조심태의 보고에 의거하여 화성 성역 안공을 아뢰다.	47	46b	卷1.啓辭		
135	1796.8.21.	啓辭	1.승지김조순이 미적은 태을 임지 못 한 작수 틀에 게시 상하기를 아뢰어 운허한다. 2.김조순이 북성면역 공해와 역촌터를 정할 것을 아뢰고, 이곳을 관리 할 사담을 여쭙어 차출 받다.	48	1a	卷1.啓辭		
153-1	1796.9.17.	啓辭	예조에서 성신사에 위패를 봉안할 날짜를 아뢰다.	48	31b	卷1.啓辭		
162	1796.11.9.	啓辭	수원유수조심태가 의궤 제작에 관하여 아뢰어 의성의 명을 받다.	48	53b	卷1.啓辭	卷二	
							御製	0/7
							御封	0/3
79	1796.4.19.	頒賜	감동, 패장, 원역, 공장에 게음식을 나누어 주시어 정심 명게하시다.	47	1b	卷2.頒賜		2/13
80	1796.4.22.	頒賜	음식을 하사하시다.	47	1b	卷2.頒賜		
81-1	1796.4.23.	別單	성역도청 이유경의 별단 후록	47	2a	卷2.頒賜		
50	1795.10.19.	稱讚	장남헌에서 감동 이하에게 호쾌한 내역.	46	15b	卷2.稱讚	稱讚	9/10

61	1796.1.22.	稿饋	진교에 따라 감동 이하 원역, 장인, 모군까지 호쾌하다.	46	57a	卷2.稿饋		
89	1796.6.4.	稿饋	감동당상이하호쾌내역.	47	14a	卷2.稿饋		
104	1796.7.15.	稿饋	별근직김회가동장대에서감동한호쾌내역.	47	24b	卷2.稿饋		
111	1796.7.29.	稿饋	별근직서영보가동장대에서감동한호쾌내역	47	41a	卷2.稿饋		
116	1796.8.10.	稿饋	장학경이호쾌한내역.	47	43b	卷2.稿饋		
124	1796.8.15.	稿饋	서용보가낙남현에서호쾌한내역.	47	46a	卷2.稿饋		
132-1	1796. 8. 19.	稿饋	호쾌내역.	47	51b	卷2.稿饋		
137	1796.8.27.	稿饋	김창인이동강대에서호쾌하고시상한내역.	48	2b	卷2.稿饋		
147-1	1796. 9. 10.	贊典	상잔내역.	48	24b	卷2.贊典	贊典	1/8
130-1	1796.8.18.	儀註	大稿饋儀	47	48a	卷2.儀註	儀註	1/8
56-1	1796.1.	節目	宮樞輪把城上派守節目	46	50a	卷2.節目	節目	1/3
18	1794.1.7.	祝文	孰知山浮石告由祭文	40	30b	卷2.告由文	告由文	8/14
24	1794.1.25.	祝文	城址始役告由祭文	40	37a	卷2.告由文		
30	1794.2.28.	祝文	南門開基告由祭文	40	46a	卷2.告由文		
31	1794.2.28.	祝文	北門開基告由祭文	40	47a	卷2.告由文		
32	1794.2.28.	祝文	水門開基告由祭文	40	48a	卷2.告由文		
75	1796.4.6.	祝文	西城始役時八達山告由祭文	46	72a	卷2.告由文		
101-2	1796.7.11.	祝文	城神回開基告由祭文	47	22b	卷2.告由文		
155-1	1796.9.19.	祝文	城神回奉安祭祝文	48	34b	卷2.告由文		
45	1795.9.27.	上樑文	蒼龍門上梁文	46	1a	卷2.上樑文	上樑文	5/11
53	1795.12.11.	上樑文	華西門上樑文	46	18a	卷2.上樑文		
86	1796.5.15.	上樑文	東北鋪樑上樑文	47	6a	卷2.上樑文		
107-1	1796.7.20.	上樑文	華陽樑上樑文	47	27a	卷2.上樑文		
108	1796.7.24.	上樑文	城神回上樑文	47	33b	卷2.上樑文		
						教撰碑文		0/1
						卷三		
						目錄		
33	1794.2.28.	狀啓	수원유수로임명된조심태가전수원유수이명식으로부터발명부를견해말았음을보고하다.	40	49a	卷3.狀啓	狀啓	11/55
39	1794.3.11.	狀啓	진라감사이사구가비벌사의명대로화성문부의계목을배이운반하는과유수영의기행절차를조사하여보고하다.	40	54b	卷3.狀啓		

40	1794.3.15.	狀啓	수원유수조심태가진목경과팔달산근처에서무름돌을기름원하는사람의 명단을보고하다.	40	57a	卷3.狀啓			
43	1794.4.3.	狀啓	수원유수조심태가비번사의관문을받고서호사의계목증살어나르지못한것 의양과진행상황등을보고하다.	40	63a	卷3.狀啓			
76	1796.4.12.	狀啓	수원유수조심태가성역도청이유경이금군별장을겸임하게된일'로해조에 서번통하게해달라고어뢰다.	46	74b	卷3.狀啓			
133	1796.8.19.	狀啓	승지김준이호패를가행하고강인들에게팔과돈을지급한 일등을보고하다.	47	52b	卷3.狀啓			
134	1796.8.19.	狀啓	수원유수조심태가호패를가행하고강인들에게팔과돈을지급한.등을보고하 다.	47	53b	卷3.狀啓			
152	1796.9.16.	狀啓	수원유수조심태가'정리의제경의관문을받고서석수명에게시상하였음을 보고하다.	48	30b	卷3.狀啓/卷4.來關			
153-3	1796.9.17.	狀啓	위판을미치조성하지못한연유를보고하다.	48	32a	卷3.狀啓			
156	1796.9.20.	狀啓	9월25.부더불화를들게할것임을보고하다.	48	37a	卷3.狀啓			
158-2	1796.10.9.	狀啓	유지의뜻대로시상함을보고하다.	46	38a	卷3.狀啓			
51-1	1795.10.28.	別單	장용와사조심태가선평과제증단을받았고.관시행하게됨을어뢰다.	46	16a	卷3.別單	別單		4/13
52-1	1795.11.11.	別單	전령의뜻대로무명과난자를나누어주었음을어뢰다.	46	17a	卷3.別單			
95-1	1796.6.25.	別單	도청이유경이진행대로행하였음을보고하다.	47	19b	卷3.別單			
139	1796.8.29.	別單	감동당상조심태가성역전행상황을자세히어뢰며어뢰더라도만드시안공날 짜에맞추겠다고보고하다.	48	4a	卷3.別單			
15	1794.1.6.	關文	예조에서고유제에쓰.제.물.을.상.세.하.게.기.록.하.여.담.관.청.에.하.달.하.다.	40	28b	卷4.來關	卷四 來關		2/72
16	1794.1.6.	關文	예조에서고유제장소와제사지내는법에관해상세하게기록하여담관청에 하달하다.	40	29a	卷4.來關			
174	...	式例	朔下式例	48	74b		甘結		0/40
175	...	式例	雜例式例	48	75b		粟目 事目		0/30 2/5
173	...	工匠	工匠費數	48	70b		工匠		0/22
171	...	財用	물력구획	48	65a		卷五 目録 財用上		
							卷5.區劃		0/14
							- 區劃 - 措備		

172	...	財用	실제소용된비용	48	66b	卷5-6, 實入	- 實入	1/34
							卷六	
							目錄	0/1
							財用下	0/24
							- 實入一	0/10
							- 實入二	0/12
							- 雜物	0/9
							- 實入三	0/1
							- 各樣雜下	0/6
							- 實入四	0/9
							- 還在	
							附錄一	
							目錄	0/1
87	1796.5.27.	설명	維興宅情의 北行團始役, 남북행각에 대한 설명.	47	13a	附編1, 行宮	行宮	1/17
141	1796.8.29.	설명	迎華館에 대한 설명.	48	5b	附編1, 亭渠	亭渠	1/3
							附錄二	
							目錄	0/1
140	1796.8.29.	傳敎	양제도를 영화로도 소개하게 하시다.	48	5b	附編2, 傳敎	傳敎	2/10
169	1797.1.29.	傳敎	영취찰방이 오건을 수령으로 제수하되 역의 규모가 안정되기를 기다려 임명하게 하시다.	48	64a	附編2, 傳敎		
60	1796.1.21.	筵說	농사일에 게으른 수원부상들을 권면할 방법을 논의하게 하시다.	46	56b	附編2, 筵說	筵說	2/7
67	1796.1.24.	筵說	황궁하시면서 새로 개간한 들과 세로 쌓은 방축에 이름을 붙이시다.	46	62b	附編2, 筵說		
68-1	1796.1.24.	御製詩	황궁하신 뒤에 지으신 칠언절구.	46	64a	附編2, 御製	啓辭	0/10
68-2	1796.1.24.	御製詩	지지대 위에서 지으신 오언율시.	46	64a	附編2, 御製	御製	2/47
							御射	0/5
							節目	0/2
							告由文	0/3
141-1	1796.8.29.	上樞文	迎華館 上樞文	48	7a	附編2, 上樞文	上樞文	1/11
54	1796.12.20.	狀啓	수원유수 조삼태가 11월의 '停役論'의 뜻을 받들어 수원부의 농사정책과 심정에 관하여 보고함이다.	46	33a	附編2, 狀啓	狀啓	1/4
83	1796.5.8.	別單	수원유수 조삼태가 둔전에서 나는 곡식과 경미를 처리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원 것이다.	47	4a	附編2, 別單	別單	1/1

